

“상상도 못한 ‘이순신 열풍’...나도 놀랐다”

이순신 인간적 리더십 다룬
진부하지만 교훈적 이야기
역사는 현재와 맞닿아 있는 것
국민이 원하는 뇌관 건드려

영화 '명량' 순천 출신 김한민 감독



순천 출신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 열풍이 '명량' 흥행에 한몫 했다고 말하며 이순신 삼부작인 '한산' '노랑'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영화 '명량'이 국내에서 역대 흥행순위 1위를 차지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 (1362만 명)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17일까지 1462만 명을 동원했다. 국민 세 명 중 한 명 꼴로 이 영화를 본 것이다. 전인미답의 스코어다.

'명량'을 연출한 순천 출신 김한민(46) 감독은 18일 “이게 내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스코어) 아직 구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가 늦게 ‘오는(느끼는) 편이라, 일단 소식을 접하고 지금은 답답해요. 나중에 ‘그게(감흥) 오겠소. 감독들이 갖는 어떤 체질적인 시간차라고 할까요? 현장에서 무언가 긴박한 일이 벌어졌을 때 냉철하게 대처해야 해요. 그게 감독이 갖는 본능적인 자세죠. 지금은 일단 (냉철하고) 답답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생의 순간이었다는 느낌은 1년 후나 다가가지 않을까요?”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필관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아바타'의 기록을 제친 지 이틀 만이다. '명량'은 국민영화라 할 만하다. 이순신 열풍을 불러 일으키며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200만~1300만 관객을 초단 기간 돌파했고, '괴물' (1301만 명)과 '아바타'의 흥행기록도 깼다. 그러나 애초 '명량'은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다. 순제작비만 150억 원이 넘었다. 손익분기점은 600만 명에 달했다. 최소한 700만~800만 명은 동원해야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블록버스터급 영화였다.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김 감독은 700만 명 정도의 관객은 자신했다. 장년층에는 '성웅' 이순신이라는 콘텐츠를, 젊은 층에는 '해전'이라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투트랙 전략'이 통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순신을 다룬 전작들은 흥행이 잘 안됐어

요. '성웅' 이순신으로서의 전기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죠. 저는 해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순신의 인간적인 모습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중장년층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보고 싶어해 극장을 찾고, 젊은 층은 스펙터클한 해전이 어필할거라 판단했죠. 두 부분이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여기에 영화를 만든 그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이순신 열풍이 '명량' 흥행에 한몫했다.

“이 영화가 국민이 원하는 뇌관을 건드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여러 사람이 이순신 장군과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좌절되고 희망 없는 순간을 버텨내셨고,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장총과 백성이 힘을 보태 무언가를 이뤄냈습니다. 진부하지만 교훈적인 이야기, 컨벤션이지만 좋은 컨벤션이에요. 영화의 흥행은 그러한 부분과 영화적 재미가 맞물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의 값진 열매는 과거의 고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났다. '명량'이 속성하기까지는 3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은 그에게 '지나'했다. 그 과정에서 '회의의 순간'도 찾아왔다.

“한국 관객은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고 까다로워요. 그런 관객들에게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한 시간이 넘는 해상전투 장면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때론 압박감과 회의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죠.”

'명량'과 '최종병기 활'(2011·747만 명)로 무려 2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김한민 감독은 탄탄대로를 걸어왔을 것 같지만, 한때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아갔던 적도 있었다. 데뷔작 '극락도 살인사건'(2007)은 말 그대로 7전 8기의 작품이었다. '7번 얻어지고 8번째' 촬영에 들어갔다. 프로젝트가 한 번 얻어질 때마다 1년~1년 반이 강그리 사라졌다. 그는 약 10년 동안 '레디 엑션~'을 외치는 대신 작품만 준비했다.

두 번째 장면 '핸드폰'(2009·63만 명)은 영화 중간 회자가 바뀌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줬지만,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최종병기 활'과 '명량'이라는 열매는 달았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은 '도전과 함들의 연속'이었던 것.

“영화감독이란 직업, 많이 힘들어요. 권력 보다는 책임감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직업이예요. 만약 주변 사람들의 자녀가 영화 하겠다고 나선다면, 저는 일단 ‘하지 마라’고 말하려고 권유합니다. 한 번 강하게 반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도 한다고 한다면 모르는 척 묵인해 줘야 한다고 조언해요.” '명량'의 메가 히트로 그가 기획한 이른바 이순신 삼부작인 '한산'과 '노랑'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김 감독은 “분명히 만들고 싶고, 또 만들 생각이지만 아직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속 독립투사의 이야기나 상고사 이야기 등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역사란 선조들이 생생하게 걸여온 발자취입니다. 그만큼 현재와 맞닿아 있어요. 인물들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역사가 주는 결과도 교훈적인 부분이 많습니 다. 그곳에서 꿈틀대는 그분들의 발자취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연합뉴스



전남대 용봉연합산악회 호주 최고봉 등정 성공

세계 7대륙 최고봉 중 1곳만 남아

전남대 용봉연합산악회는 지난 16일 낮 12시께 오세아니아주 최고봉인 코시어스코 등정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최희동 원정대장을 포함한 5명의 대원은 등정성공사진을 SNS를 통해 전송해왔다. 이로써 용봉연합산악회는 세계 7대륙 최고봉(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남극)중 마지막 등정인 남극의 빈센트스프(2016년 등정예정)만 남겨놓고 있다. 원정대는 19일 귀국해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

스텐트 新 코팅법 일본 특허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센터장 정명호 교수·사진)가 최근 스텐트 관련 일본 특허를 등록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약물 코팅 스텐트 제조에 사용되었던 중합체(폴리머)를 사용하지 않고, 혼합에서 유래한 강력한 부착단백인 도파민을 이용한 획기적인 약물 코팅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이번 특허는 혈관 내 혈전 형성을 억제해 폐하린을 스텐트에 코팅하기 위해 도파민을 이용했고, 그 결과 혈전 형성 억제는 물론 생체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간편한 제조 공정으로 인한 유기용매와 같은 인체 유해 물질을 배제시켰다.

전남대병원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지난 2012년에 국내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번 특허 등록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가장 뛰어나고, 산업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본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가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관련 연구를 미국, 유럽 등에 확장시키기 위해 준비중이다.

지금까지 정명호 교수는 스텐트 관련 연구만으로 298편의 논문, 24건의 특허등록, 4건의 기술이전 등 국내 최고의 업적을 보유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보성군 드림스타트, 초등생 대상 레저스포츠 캠프



보성군(군수 이용부) 드림스타트는 최근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40여명을 대상으로 레저스포츠 캠프를 운영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광주은행 '2014 을지연습' 심폐소생술 현장체험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14을지연습'에 참여한 광주은행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전남농협, 보성 참다래 농가 워크숍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최근 보성특산물농협에서 참다래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NH키위 권역연합사업' 산지조직육성 및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농협지역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이정일(전 광주 서구청장)·김현숙씨 차남 화염군 이성원·강경신씨 장녀 소망양=30일(토) 낮 12시 50분 홀리데이인 광주 3층 컨벤션 홀.
▲정영석(장흥관산고 교장)·조순덕씨 장남 평수군 고관석·임현숙씨 딸 효주양=31일(일) 낮 12시 광주 광천동 메종 드보네르(구 꿈의 궁전) 5층 그랜드볼룸홀 010-5101-7111.

알림

▲사단법인 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회장 강원구)운영위원회=8월27일 낮 12시 광주 동구 불로동 히딩크관광호텔 6층 대강당 062-227-8500.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안병원

(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비 노년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을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지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이발기술 무료 전수=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초·중·고 졸업생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차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수강생=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놀이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 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놀이패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

527-7295.
▲사랑모아 가족복지회원=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월 3~4회 노인 돌봄·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중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부음

▲김영만씨 별세 형빈·옥빈·정빈·형남씨 부친상=발인 1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홍의식씨 별세 정희·남희씨 부친상=발인 19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한홍석씨 별세 창빈·귀영씨 부친상=발인 19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남진철 님(남/76세) 子/子婦: 남정영/조진희, 남정호/김이영 女/婿: 남정미/김순창 • 발 인: 8월 19일 • 장 지: 영락공원	102호 故고동철 님(남/68세) 子: 고찬석, 고형민 女/婿: 정민정/유성현, 민현희 未亡人: 문현숙 • 발 인: 8월 19일 • 장 지: 영락공원
402호 故나영순 님(여/75세) 子/子婦: 유정원/김기영, 유민철/박은숙 女/婿: 유영미/최영수, 유영아/임태형 • 발 인: 8월 20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14	
孝 金호 장례식장 仁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